혁신·소통·융합… 디자인으로 새로워지는 세상

▲일본 건축가 도요 이토가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광장에 설치한 공간조형물 '신명'. 이 작품은 관람객과 주제관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추진단·박영채 제공〉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0년째를 맞는 올 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을 주제로 오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한달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다.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주관한 이전 행사와는 달리 올 행사는 처음으로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주관했다. '예술'에 치중했던 지난 행사에서 보다 발전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만의 정체성을 갖는다는게 디자인센터의 입장이다. 지역과 세계의 융합을 시도한 '지역 디자인산업의 브랜드화'를 중점 추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산업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15일~11월 13일…지역 디자인산업 브랜드화 중점
100여국 3000여점 출품…세계적 디자이너 대거 참여

◇디자인 미래 보여주는 네개의 테마=이번 전시회는 네개의 테마로 구성되며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100여개 국가에서 3000여점이 출품될 예정이다.

첫번째 주제전 '광주 지역 브랜드 업그레이드(Gwangju Branding)'전은 동서가치 융합의 신명을 키워드로 한다. 광주지역 중소기업과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협업을 통해 개발한 디자인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국내 첫 LED조명 '고효율 인증업체'인 (주)이노셈코리아(대표 최운용)와 프랑스 여성 건축가 오딜 데크(Odile Decq)가 만나 현대적 디자인의 각종 LED 조명 제품을 선보인다. 이를 포함해 알베트로 메다, 한경하 등 각기 다른 디자인 철학을 가진 국내외 9명의 디자이너들이 지역 제조업체 10곳과 협업한 조명, 생활용품 등 결과물 9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두번째 테마(본전시 1)는 '유쾌한 디자인 나눔'을 키워드로 세미나, 담론, 발표, 파티 등으로 구성된다. 대중들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을 목표로 '디자인콘서트', 광주·전남 공예디자인 상품을 선보이는 '광주문화디자인숍' 등이 마련됐다.

세번째 테마(본전시 2)는 국내외 대학과 기업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창의 혁신 디자인 사례를 보여주는 '디자인 R&D'전이 펼쳐진다.

네번째 테마(본전시 3)는 동아시아의 디자인그룹과 큐레이터가 참여해 '한·중·일 문화가치'를 알아보는 '아시아 디자인 허브'전 이다. 전시에 참여한 디자이너들은 각국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침실, 부엌 등을 소재로 미래 주거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

이외에도 더불어 행사의 주제를 더욱 강조하고 전 세계적 관점에서 전시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개의 특별 전시를 마련했다. 현시대의 '뉴디자인트렌드'를 소개하는 뉴이탈리안 디자인 2.0전과 뉴욕 현대미술관 'MoMA(Museum of Modern Art)'와 함께한 유쾌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전시한다.

◇국내·외 디자이너 대거 참여…지역과 세계의 만남=이번 행사는 국내·외 디자인계의 거장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MoMA'의 수석디자이너 파올라 안토넬리를 비롯해 스테파노 지오반노니, 오딜 데크, 알버트 메다 등이 큐레이터와 디자이너로 선정됐다. 또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 건축가 도요 이토씨가 '디자인 신명'을 주제로 한 공간조형물 '신명'을 비엔날레 광장에 설치했다. '신명'은 작가가 담양 소쇄원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대나무, 자작합판, 스틸 등을 소재로 제작된다. 관람객들은 이 공간은 통해 비엔날레 1층 전시관으로 입장할 수 있다.

또 디자인비엔날레 사상 처음으로 지역협력감독(손영환 목포대 교수)과 해외협력감독(조쉬앤프랭크 프랑스 생테티엔디자인비엔날레 감독)을 선임해 지역과 세계의 화합을 시도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디자인비엔날레=시민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자인플라워'전을 마련했다. 이번 전시는 '내가 생각하는 꽃, 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제로 3030명의 꽃 디자인을 선착순 접수받아 작품을 완성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030'은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일인 '2015'와 '10월 15일'을 더한 것으로 지난 9월1일부터 공모를 실시했다.

모집된 디자인 이미지들은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가 허달재 화백의 '백매화도' 6점에 합성해 원화와 함께 영상으로 구현한다. 공모 선정자들은 전시 참여작가로 등록되며 무료 입장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LED디자인 국제공모전 개최해 100개의 입선작을 최종 선정, 특별전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역조명업체 '이노셈 코리아'와 프랑스 여성 건축가 오딜 데크가 협업한 조명 제품.

'아시아 디자인 허브'전에 출품된 양석중 작품.

최경란 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유쾌한 디자인 시민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광주 만들 것"

"시민들이 참여하는 디자인 비엔날레로 신나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오는 15일 개막하는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최경란(52·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 총감독은 이번 행사의 목표로 '시민들의 즐거움'을 꼽았다.

최 감독은 "광주는 그동안 5·18 등 많은 아픔을 겪으며 우울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며 "디자인은 간단하고 소소한 걸로도 웃음을 줄 수 있다. 디자인을 통해 밝은 광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크게 내용, 형식, 참여 부문으로 나눠 올 행사를 추진했다.

"첫째 아시아 유일 디자인비엔날레로서 한·중·일 디자인 허브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 둘째, 디자인 콘서트 등 작가들이 직접 디자인에 대해 발표하는 행사를 통해 결과가 아닌 과정도 보여줄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기업인만 참여하는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민이 함께 완성하는 행사를 만들어가겠다."

최 감독은 비엔날레 1층 전시관에 관람객들이 직접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보고 작가들도 만나볼 수 있는 빈 공간을 마련했다.

최 감독은 "시민들이 게임도 하고 디자인 제품도 만들어보고 작가 워크숍 등을 통해 '이런게 디자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기획했다"며 "유쾌한 디자인이야말로 기업에게는 새로운 경쟁력을, 대중에게는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전시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 감독은 "10년째를 맞는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가 변화와 도약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산업화·국제화·대중화를 통해 지역민과 기업들 모두 만족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

매일 다섯 차례 도슨트 정기 설명
홈피 사전예매 입장권 30% 할인

오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열리는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단 현장 입장권은 오후 5시30분까지 판매한다.

매일 오전 10·11시, 오후 2·3·4시에는 도슨트 정기 설명이 이어지며 약 1시간에서 1시30분 정도 소요된다. 10인 이상 단체는 사전 예약을 통해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입장료는 성인 1만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이며 단체,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4일까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홈페이지(www.gdb.or.kr) 티켓정보란 등을 통해 사전 예매를 했을 경우 30% 정도 저렴에 가격에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주차는 광주 중외공원 인근에 마련된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 062-611-5144.